

브라질, 농업도약과 성장요인

DDA 협상이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담 실패를 거쳐, 2004년 8월 1일 드디어 중간지점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골격 합의’에 도달했다. 작년까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것이나, 이번 기본골격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도국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UR) 협상과는 큰 차이점이다.

개도국 중에서도 남미의 브라질은 초기에는 케언즈 그룹의 유력한 멤버로서, 그리고 칸쿤 각료회담부터는 개도국들만으로 구성되는 G20을 결성해 농업협상에서 구미 제국과 대립해 왔다. 개도국 농업기반은 약하다고 하는 약자의 논리가 아니라, 보조금 없이 정면 승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된다면 이길 것이라는 강자의 논리가 남미 농업대국의 공격적인 협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브라질 농업의 성장요인을 살펴본다.

1. 브라질 농업의 도약

미국은 과거 40년 정도 옥수수, 대두, 소맥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수출국 자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브라질의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몇 개의 농산물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하고 있다.

1990년 이후 10년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모두 대두 생산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해 왔다. 아르헨티나는 소맥 약 70%, 옥수수 100%, 브라질은 옥수

수 약 40% 정도로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중 미국의 증산은 대두 약 40%, 옥수수 약 20%정도에 불과하고 소맥생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의 대두 증산은 국내소비 증가속도를 웃돌아, 그 결과 수출 증대와 세계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져 왔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두 및 대두제품 수출량(대두환산)은 2001년 시점에서 세계시장의 50%에 육박하고, 미국 시장의 3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남미지역의 이러한 증산이 1990년대말 이후 국제가격 하락을 초래하여 미국정부에게 농업보조금 지출증대의 명분을 준 측면이 있다.

2. 브라질 농업의 성장요인

브라질은 악성 인플레이션, 환율의 지나친 평가절상, 통화비율의 잦은 조정 등 불안정한 경제운영을 해 왔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농업을 희생하여 다른 경제부문의 성장을 꾀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국내 가공업 진흥책으로서 농산물의 국내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고, 농산물 수출시에는 수출세와 수출할당이 의무화되었다. 한편 국내산업 보호대책으로 농업자재 수입에는 고관세와 수입규제를 마련해 ‘수입대체’ 계획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이후 정치적 다원주의화로 이행이 시도되는 가운데, 경제·행정개혁이 단행되어 농업생산 확대의 문이 열렸다. 무역규제의 완화 및 시장 자유화로 의해 1990년대에 농업자재 수입과 기술활용이 크게 신장되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농업연구기관 EMBRAPA가 온대 작물을 열대권인 내륙 사반나 조건에 적응시킨 품종개량에 성공하여 대규모 기계화 농법이 가능해져 상업적 농업생산의 길이 열었다.

표 1 미국·브라질의 대두생산비용 비교, 1988/99년

단위 : 달러/에이커

	미국	브라질
변동비	78.59	132.06
고정비	156.32	30.01
지가	87.96	5.84
생산비 총액	234.91	162.08
생산원가(달러/부셀)	5.11	3.89
(로테르담에 수출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격경쟁력 비교)		
국내수송·판매비용	0.43	1.34
로테르담 운임	0.38	0.57
로테르담 CIF 가격	5.92	5.80

주 : 미국은 오하이오주 서쪽에서 남 다코타주까지
 브라질은 마토 그로소주
 자료 : 미국 농업부(USDA) WRS-01-3

더구나 1990년대 중반에는 세계 농산물가격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공세를 강화하고 있던 농민들은 농업투자 확대·증산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국경조치를 포함해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도 확대되고, 이것이 농업부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게 되었다.

한편, 곡물메이저들이 진출해 브라질 내륙의 보관시설과 항만시설·착유공장 등을 산하로 흡수하고, 최신 농업기술도입, 시카고 곡물시장을 기반으로 한 거래형태의 일상화, 수출시장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을 가능하게 하여, 이것이 브라질의 대두 생산의욕을 크게 자극함으로써 브라질이 미국에 버금가는 생산대국이 되는 요인이 되었다.

풍부한 토지자원과 양호한 기후조건의 갖춘 브라질의 농업은 인위적인 힘이 아닌 자연의 힘에 의한 저비용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대두의 경우를 보면, 브라질의 단위생산량(부셀) 당 생산비 총액은 미국에 비해 20% 정도 낮다.

미국은 변동비용으로는 가장 낮지만, 지가가 비싸 결과적으로 생산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 대두지대의 평균농장면적이 120~150ha인데 대해 브라질은 평균 1,000ha가 넘어, 규모의 차이도 고정비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출경쟁력의 경우, 내륙과 해상 수송비용까지 포함한 수출비용 전체를 계산해야 한다. 브라질의 경우 대두생산의 중심지인 중서부에서 항구까지 평균거리가 1,000km를 넘는 데다, 그 사이를 트럭 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등 수송비가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규제완화와 인프라 정비를 통해 서서히 이 비용을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여왔다. 때문에 수출비용 전체로 보아도 브라질이 미국보다 약간 우위에 서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경제개혁은 IMF 등 국제금융기관이 융자 계속을 조건으로 요구해 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는 미국식 채무국 금융·경제개혁의 신조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확대시킨 규제완화·시장지향 경제·농업정책에 대한 신조가 결실을 맺은 결과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가 수출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한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이것이 DDA 협상에서 브라질이 미국에게 농업보조 감축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http://www.zenchu-ja.org/wt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